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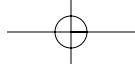


##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고 언제 돌아가셨는가?

-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기사에 대한 복음서 기사들의 역사적 신빙성 변호 -

### 서론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와 언제 돌아가셨는지가 기록되어 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탄생 기사를 당시의 역사적 정황에 따라 구축해 보면 마치 두 복음서의 기록에 차이(충돌)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공관복음(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짜를 서로 다르게 표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 많은 비평학자들은 복음서의 역사적 신빙성(historical reliability)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우리는 이 글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기사에 대한 사복음서의 기록이 역사적으로 일치하며 따라서 성경의 무오성이 잘 유지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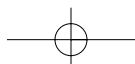
## 1. 예수님의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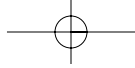
먼저, 예수님의 탄생 연도에 대하여 살펴보자. 이것은 마태복음의 기사와 누가복음의 기사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 1) '주후'(AD)의 기원

지금 우리의 햇수 계산 방식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원년으로 한다. 즉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을 '주전'(Before Christ: 영어로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뜻)이라 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를 '주후'(Anno Domini: 라틴어로 '주님의 해'라는 뜻)라 하여 햇수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대 기술 방식은 주후 6세기 초에 로마에서 활동했던 수도사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Dionysius Exiguus)가 만든 것이다. 그는 신학, 수학, 천문학 등에서 뛰어난 학문적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주후 525년에 교황 요한 1세(523-526년 재위)가 그에게 부활절의 정확한 연대를 계산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연대기를 도입하였다.

사실 고대에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왕의 연호(무슨 왕 몇 년)를 사용하는 것이 관례였다. 당시 로마 제국 역시 예외가 아니었는데, 그들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주후 284-305년 재위)의 즉위 연대를 기원으로 하는 마르티르(Martyr)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기독교를 매우 심하게 박해했던 왕이었기에 교황은 그러한 왕의 연호를 부활절 연대 계산에 사용하는 것을 싫어하여 당시의 대학자였던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로 하여금 진정한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의 연호를 사용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이에 따라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는 로마제국의 기원 연도와 예수님의 생애를 비교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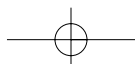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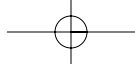
구하였고 이렇게 산출된 예수님의 탄생 연도가 로마제국 건국으로부터 754년 후라는 것을 알았다(로마제국은 주전 753년 4월 21일에 건국되었음). 그리하여 그는 A.U.C.(ab urbe condita[도시(로마) 건설 이후]) 754년을 주후 1년으로 계산하였다.

그러나 후대의 학자들은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가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잘못 계산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성경과 고대 문헌을 연구한 후에 예수님이 적어도 주전 4년 이전에 태어났음을 알았다. 즉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해는 A.U.C. 754년이 아니라 적어도 A.U.C. 750년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는 A.U.C. 750년을 주후 1년으로 계산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가 이러한 중대한 계산상의 착오를 일으킨 것이 후대에 사실로 드러나기는 했지만 후대의 사람들이 이 연대 시스템을 고치는 것은 불가능했다. 모든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주후’ (AD) 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고친다는 것이 너무 어려웠던 까닭에 오늘날까지 그냥 일반화되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 2) 성경의 기록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는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연도를 추정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근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이다. 마 2:1에 따르면 예수님은 헤롯대왕(Herod the Great)이 살아 있을 때 태어나셨다. 헤롯대왕은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주전 4년에 죽었다. 이는 역사가 요세푸스(Josephus)의 기록에 잘 나타나 있다(Antiquities, 17.6.4). 특히 요세푸스의 기록에는 “헤롯이 죽던 해에 월식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천문학자들에 따르면 주전 4년 3월 12일에 실제로 월식이 있었다. 따라서 헤롯의 사망 연대에 대한 요세푸스의 기록은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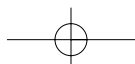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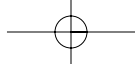
그러므로 예수님은 적어도 주전 4년 이전에 태어나신 것이 된다. 게다가 마 2:16에 보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헤롯 대왕에게 와서 이스라엘에 왕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전하자, 헤롯 대왕이 듣고 베들레헴에 사는 두 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는 헤롯 대왕이 동방박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나이를 두 살 이하로 보았다는 뜻이다. 즉 예수님의 탄생 연도가 그때로부터 약 1-2년 전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께서서는 주전 6-4년에 태어나신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2:22은 이때 예수님께서서 부모와 함께 헤롯의 박해를 피해 이집트로 피신하셨다가, 헤롯의 아들로서 주후 6년까지 사마리아와 유다를 통치한 헤롯 아겔라오 왕 때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셨다고 기록한다.

그런데 눅 2:1은 예수님께서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배경을 설명하면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Caesar Augustus, BC 31-AD 14년 재임)가 로마 제국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당시에 로마 황제가 이러한 호적등록령을 내린 것은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었다. 이어서 눅 2:2은 이 호적등록령이 구레뇨(Quirinius)가 수리아(Syria)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고 언급한다. 그런데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 된 것은 주후 6년의 일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주후 6년 이후에 태어나신 것이 되어 마태복음의 기록(헤롯대왕의 죽음 이전)과 맞지 않게 된다. 단지 몇 년의 차이라면 모르겠지만 거의 10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대하여 마태복음의 기록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누가복음의 기록이 옳은 것인가? 이러한 불일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 3) 해결책

예수님의 탄생 연도에 있어서 마태복음의 기록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차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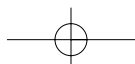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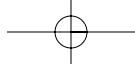


보이는 것은 비평학자들의 공격 표적이 되어 왔다. 그들은 누가가 마태의 기록(예수님이 헤롯대왕 때 태어난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눅 1:5을 볼 때 누가는 예수님께서 헤롯대왕이 살아 있을 때 태어나셨음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역사가로서 주의 깊게 모든 자료들을 검토한 후에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한 누가가(눅 1:1-4) 당시에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역사를 몰랐을 리가 없다.

지금까지 이에 대하여 여러 해결책들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한 제안들 중에서 가장 만족스런 것은 성경의 역사적 신빙성(historical reliability)을 주장하는 많은 보수적인 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눅 2:2에서 ‘처음’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프로토스’가 잘못 번역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즉 이 구절에서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first) 한 것이라’는 말은 원래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기 전에(before) 한 것이라’는 말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헬라어 ‘프로토스’는 ‘처음’이라는 뜻과 ‘전에’라는 뜻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전에’로 번역되어야 하며 그렇게 볼 경우에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된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주전 4년경에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었으며(누가는 이때의 인구조사를 잘 알고 있었다. 행 5:37) 이때는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 되기 전이었다.

게다가 주후 6년경에는 갈릴리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등록을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때는 헤롯 대왕이 이미 죽고 헤롯의 세 아들이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이다. 당시에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고 유대는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렸다. 그런데 호적등록령의 목적은 세금을 걷는 것이었고 따라서 각 지역은 별도의 세금을 걷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갈릴리에 사는 요셉과 마리아가 유대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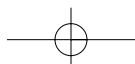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후 6년 이후에 태어나셨다고 보는 것은 정황상으로도 옳지 않다. 결국 우리는 마태와 누가의 기록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이들의 기록과 요세푸스의 자료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이 주전 6-4년 사이에 있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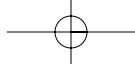
#### 4) 그 밖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정확한 날짜를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물론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 날짜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이미 알려져 있듯이 이 날은 고대 로마제국이 임의로 정한 날짜일 뿐이기 때문이다. 성경의 정황을 통해서 추정하건대 예수님은 봄이나 여름에 태어나셨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목자들이 날씨가 따뜻한 늦봄이나 여름에만 들판에서 밤을 지새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탄절에 특히 동방박사들이 많이 언급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성탄 당일이나 그 직전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헤롯이 두 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음을 고려할 때 동방박사들이 방문한 때는 예수님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아마 몇 개월 후)라고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동방박사가 세 명이라는 증거도 없다. 그들이 세 개의 선물을 바쳤다고 해서 세 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능성은 있지만 정확하지 않다. 오히려 복음서에 기록된 헤롯의 반응들을 고려할 때 동방박사들은 굉장히 많은 무리들(혹은 무리들을 대동한 자들)일 가능성이 높다.

## 2. 예수님의 죽으심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짜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이것은 공관복음(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기사와 요한복음의 기사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와 관련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 연도에 대한 논의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이 문제에 대하여 곧 출간될 필자의 줄져, “요한복음 해설노트”, SFC를 참고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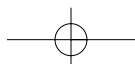
### 1) 문제점: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불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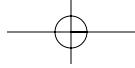
공관복음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제 삼시’(오늘날의 오전 9시)라고 기록한다(막 15:25). 그러나 요 19:14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날에 대하여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목요일?]'이요 때는 제 육시' 라고 기록한다. 따라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사이에 심각한 연대기적인 충돌이 일어난다. 즉 공관복음은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오전 9시라고 기록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목요일에 돌아가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오후 3시인 것처럼 기록한다.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나는 ‘유월절의 준비일’이 언제인가에 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 삼시’와 ‘제 육시’의 차이에 대한 것이다.

### 2) 유월절의 준비일은 언제인가?

(1) 목요일? 금요일?

유월절(무교절[the Feast of Unleavened Bread]이라고도 함) 축제 기간은 아빕월(니산월) 15-21일이다(Josephus, *Antiquities* 3.10.5:249). 그리고 유월절의 준비일은 아빕월 14일이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의 준비일 날 집안에서 유교 병들을 없애고,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유월절 양을 잡고, 저녁에는 유월절 양으로 만찬을 벌인다. 따라서 때로는 유월절의 준비일인 14일을 유월절 축제 기간에 포함시키기도 한다(Josephus, *Antiquities* 2.15.1:317; 레 23:5; 스 6: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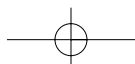
그런데 유월절은 아빕월(니산월) 15일(금요일)이므로 유월절의 준비일은 아빕월 14일(목요일)이 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공관복음에 따르면 금요일이지만 요한복음에 따르면 목요일이 된다. 만일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에 대해서 공관복음의 기록과 요한복음의 기록이 다르게 된다. 즉 하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 (2) 제안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견해들이 제안되었다. 많은 현대 신학자들은 요한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유월절 양을 죽이는 목요일에 일어난 것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한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유월절 양의 죽음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볼 경우에 복음서간에 연대기적인 불일치가 발생하며, 따라서 성경의 무오성이 흔들리게 된다. 어떤 신학자들은 요한이 다른 달력(아마도 에센파들이 사용한 달력)을 가지고 계산한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요한이 당시의 관습에 따라 시간을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기술한 것 같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 역시 성경의 무오성을 믿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다. 우리는 이제 다음의 방법으로 성경의 기록이 서로 충돌하지 않으며 일치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한다.

### (3) 기록의 일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준비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파라스큐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있다. 파라스큐에는 준비일이라는 뜻도 가지지만 ‘금요일’이라는 뜻도 가진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의 파라스큐에를 금요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특히 요 19:42에서는 파라스큐에가 확실히 금요일을 가리킨다(현대 그리스어에서도 파라스큐에는 금요일이다). 따라서 요 19:14은 ‘유월절의 금요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영어성경 NIV의 지지를 받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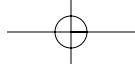
NIV는 이 구절을 의역하여 ‘유월절 주간의 준비일’ (the day of Preparation of Passover Week)이라고 번역하고, 42절을 ‘이 날은 준비일이고 다음 날은 특별한 안식일’ (it was the day of Preparation, and the next day was to be a special Sabbath)이라고 번역한다. 만일 이런 식으로 이 구절을 이해한다면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금요일에 돌아가신 것이 되어 공관복음의 기록과 완벽한 연대기적인 조화를 이루게 된다. 게다가 공관복음에서도 파라스큐에는 안식일 전날(금요일)을 의미한다. 즉 마 27:62에서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 날(준비일 다음 날)이 안식일임을 보여준다. 또한 막 15:42에서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는 준비일이 안식일 전날임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눅 23:54에서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고 한 것을 볼 때 준비일은 필시 안식일 전날을 지칭하는데 사용되었다.

### 3) 제 육시는 언제인가?

#### (1) 제 삼시와 제 육시

공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제 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공관복음이 유대의 시간 체계를 따른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유대시는 해가 뜨는 시간(대략 오전 6시)을 0시로 잡기 때문에 제 3시는 오전 9시가 된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 6시에 재판관을 받고 계신다. 제 6시는 유대시로 볼 때 낮 12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낮 12시에 재판관을 받고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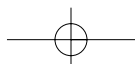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유월절 양의 죽음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시간을 변경시켰다고 주장



한다. 즉 유대인들은 유월절 양을 유월절 전날 정오(목요일 정오)에 잡아서 저녁에 먹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유월절 양의 죽음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일부러 시간을 바꾸어서 기술했다는 것이다(참고. 출 12:6). 그러나 이것은 복음서 상호간에 모순을 불러일으킨다. 즉 예수님이 만일 정오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이는 막 15:25에서 예수님이 새벽에 심문과 조롱을 받으신 후 제 3시(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기록과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

## (2) 요한복음의 시간 체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요한복음이 어떠한 시간 체계를 따르는 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요한복음의 시간은 유대시를 따르는가? 아니면 로마시를 따르는가?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의 시간을 상징적이라고 보거나, 요한이 시간에 대해서 일관성 없이 표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상세히 연구해 볼 때 요한복음은 분명히 시간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며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요한복음이 유대시를 따른다고 본다. 한글 개역개정판도 요 19:14의 제 6시를 난하주에서 낮 12시로 해석함으로 사실상 유대시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학자들은 요한복음이 로마시를 따른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에 대한 모든 언급을 고려할 때 요한복음은 로마시를 따른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이에 대해서는 곧 출간될 필자의 줄저, “요한복음 해설노트”, SFC를 참고하라). 만일 공관복음이 유대시를 따른다고 보고 요한복음이 로마시를 따른다고 본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간에 있어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시간이 일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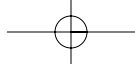
### (3) 복음서 기록의 조화

만일 요한복음의 시간을 로마시(로마시에 따르면, 자정이 0시이다)로 본다면 예수님이 재판을 받은 시간은 오전 6시이거나 오후 6시이다. 비록 제 6시를 오후 6시로 볼 수도 있겠으나 본문의 정황상 사건의 시점은 새벽이다. 요 18:27에 보면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이때가 닭이 울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판은 새벽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의 제 6시를 오전 6시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전 6시에 재판을 받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되어 공관복음의 시간 기록과 조화를 이룬다.

## 4) 최후의 만찬과 유월절 식사

예수님의 죽음의 날짜에 대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사이에 일어난 불일치에 대하여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사실은 공관복음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월절 식사가 같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지에 대한 것이다. 공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인 목요일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마 26장).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마치 수요일 저녁에 유월절 식사를 하신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요 13장). 요한복음 연구사에서 이러한 불일치 역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요한복음의 '준비일'(파라스큐에)을 금요일로 본다면 날짜에 있어서의 불일치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즉 공관복음이나 요한복음 모두에서 예수님은 아빔월(니산월) 14일(목요일) 저녁에 음식을 드신 것이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신 후 다음날 새벽에 잡혀 갔다. 특히 요 18:28에는 예수님이 새벽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러 끌려가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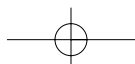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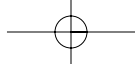
을 때,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했다는 기록이 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요한이 최후의 만찬을 유월절 식사와 다른 것이라고 말한 증거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유월절 식사와 최후의 만찬을 다른 것이라고 볼 이유는 없다. 요 18:28의 유월절 식사는 굳이 아빔월 14일(유월절 전날)에 먹는 음식 뿐만이 아니라 유월절 기간에 먹는 모든 희생 제물을 뜻하기 때문이다(신 16:2,3; 대하 35:7-9). 결국 요한복음에 신학적인 진술이 가미된 것은 사실이지만 역사적인 신빙성 역시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결론: 신학적 메시지

지금까지 예수님의 탄생 연도에 대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사이의 불일치,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날짜에 대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사이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리는 헬라어 단어에 대한 이해와 고대의 시간 체계 방식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복음서들 사이의 불일치처럼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어 성경의 무오성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성경의 무오성은 언제나 사실이며, 그에 관련된 모든 논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은 온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신학적/실존적 메시지를 준다. 그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은 일찍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리고 ‘때가 차매’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 하나님의 오랜 언약의 완성자이신 메시아가 오신 것이다. 이제 인류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누리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게 된다(롬 14:17).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러한 죽음의 근거에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그분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증명하셨다(롬 5:8).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적 표현이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누렸고, 지금 누리고 있으며, 앞으로 영원토록 누릴 것이다.

